술주정이 취한 자에게는 제정신

(잠언 20:1~30)

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3.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4.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술주정이 취한 자에게는 제정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술주정이 취한 자에게는 제정신'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취했는데 본인은 멀쩡하다고 여깁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가로등을 향해서 옵니다. 한참을 가로등을 끌어안고 있더니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습니다. 이윽고 속옷 바람이 되더니 벗어 놓은 옷을 가지런히 해놓고 차들이 씽씽 달리는 보도 곁 가로등 밑에서 곤히 잠이 듭니다. 정작 이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너무나 안정되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가로등 밑을 집으로 착각하는 자신을 제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취객에게만 해당되는 착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탄탄한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두둑한 연금이 노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품 아파트에 살면서 시골에는 별장까지 마련해 놓았고 자녀들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안정됨을 누리는 상태야말로 가로등 밑에서 자고 있는 취객의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착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20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

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무슨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안정적 상태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술주정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제정신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번역의 의미가 희석되었지만 본래 이 구절의 원문을 살펴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한 것과 같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상태를 지혜와 명철에 대칭시켜서 의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포도주는 거만한 자요 독주는 떠들썩한 싸움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하여 그 특성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단순히 무절제한 음주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대표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지혜 즉 하나님 경외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상징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는 곧 마음이 세상에 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멀쩡한데 다만 지혜에 대해 모르고 있는 중립적 상태를 말함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지식을 뜻하는 '다아트'라는 단어가 체험적 앎을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험적 앎을 뜻하는 '야다'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솥 밥을 먹고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이러는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야다' 할 때에 취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은 엄청난 흡입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술에 대한 의존이 그러합니다. 이것이 몸 밖에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흡입하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취하게 되고 중독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대상에 접촉되면 빨아들임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세상 기운에 노출되면서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사랑스럽고 좋지만 마음을 접촉시키면 취함이 일어납니다. 자녀로 마음을 채우려고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취함이 일어나면 멀쩡한 정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술주정이 됩니다. 자녀를 대하는 모든 시간이 술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의 맛을 아는 순간 마음을 채우기 위해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전체에 권력이 퍼져나가면서 취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술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서 살게 하실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몸이 만나는 세상일에 마음을 접촉시켜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몸으로 만나는 것이 어떠한 형편이나 대상이든지 그 무엇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흡입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취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있고, 내가 몸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접촉하십니다. 이것이 본래 에덴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몸으로 만나는 것에 마음을 접촉시키지 않는 삶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만나는 것들에 마음을 접촉시킴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흡입력이 세상을 향하게 되자 자연히 세상 기운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참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에 취한 상태입니다. 돈이 안 벌려서 걱정하는 것도 역시 돈에 취한 술주정입니다. 사기 당해 돈을 잃자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이것 또한 돈에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술주정의 양상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술에 취한 상태를 거만하고 떠들썩한 싸움꾼으로 묘사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의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술의 특성과 왕의 진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왕 앞에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노하게 하는 자가 바로 1절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왕이면 다냐? 부모 잘 만나 왕 된 주제에 뭘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냐? 네가 그 자리가 아니면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냐? 어디서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 앞에서 주정을 부린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왕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접해서 취하면 자신은 멀쩡하다 여길지라도 그것은 술주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모조리 술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왕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1~2절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가 왕을 분노케 함을 비유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

경외가 뭉개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에 대해 접촉할 때에 마음은 자녀로 인해 취합니다. 취했다는 것도 모른 채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녀에 대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살아 있는 법 자체인 왕 앞에서 거만을 떠는 것과 같습니다. 왕에게는 한 마디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떠드는 셈입니다.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한답시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대로 자녀가 엘리트의 길을 걷도록 애를 씁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대체 뭐야?'라고 술주정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왕의 진노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에 취하고 나면 세상의 기운이 나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멀쩡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업에 취해 있다면 술주정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 해도 술주정입니다. 왕 앞에서 진노를 사는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견 이 말씀은 앞선 1~2절과 무관해보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잠언의 구절들은 무관하고 산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실은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이를 바르게 해석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영광은 쉽게 말해 1등을 하는 상태입니다. 조명이 집중적으로 비춰져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툼은 공식적인 경쟁이든 사적인 갈등이든 이기고 싶은 마음의 충돌입니다. 다툼 끝에야 1등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영광에는 다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 되고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기고 싶고 1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조명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툼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다툼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치를 얻기 위함입니다. 권력이든 이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자존심 다툼이나 눈치싸움까지도 가치를 얻고자 함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승리했을 때에 얻어질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

다.
이를 앞 구절들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해석의 길이 보입니다. 이 세상 가치들에 취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술주정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한편 세상의 가치들에 취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툼을 벌입니다. 자신들을 취하게 하는 가치를 얻고자 맹렬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마치 먹이를 놓고 다투는 짐승 같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다툼을 피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고 말한 이유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특징은 약육강식입니다. 짐승은 세상에서 배부름을 찾고자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에게는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먹잇감을 찾지 않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어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1등인 이유는 바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배 부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세상 것에 취해서 다투며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이권을 놓고 다투려할 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다툴 이유가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취하기 위한 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과 다투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툼을 포기한 사람은 동네북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얻어맞고 당해야만 할까요? 악하고 모진 이 세상에서 호구처럼 늘 빼앗기기만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인생은 본래부터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타인에 앞서가려 하지만 그 다툼으로 인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악행에 대해 되갚으려 하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23절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다툼의 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저울 추를 속입니다. 결국 손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

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길도 모르는 주제에 술주정을 부리며 다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다투어 이긴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갈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는 것 같고 다툼을 피하는 것 같아도 이 길이야 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온전하고 완벽한 지름길입니다. 다투려고 하면 당하시고, 다투려고 하면 빼앗기시고, 다투려고 하면 줘버리십시오. 다툼을 피하십시오. 결코 다툼으로 인해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멍청해 보이는 다툼을 피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인생의 지름길을 주실 것입니다.
4절에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술주정하는 삶과 세상 가치를 위해 다투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삶에는 결코 결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세상 것을 취함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행하는 모든 일이 술주정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서 놓지 않음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 접촉하지 않고 술주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